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성심성월 ·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사도 대축일
제34권 31호(가해) 2014-6-29

[묵상]



우리 교회의
든든한
두 기둥이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두 사도를
본받아
복음화의
사명에
더욱 충실히
할것을
다짐합니다.

원조왕초

참된 왕초는 권위적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지 않고,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력에 복종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초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합니다.
왕초는 자신 보다,
자신이 보호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왕초는 머리로 생각하고 실천에 약한 사람이 아니라,
온몸으로 자신이 생각한 바를 실천합니다.
왕초는 자신과 같은 거지들이
체대로 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왕초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그를 "왕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왕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는
원조왕초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참된 왕초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오후 1:00 4째주 - 사목회 오후 1:00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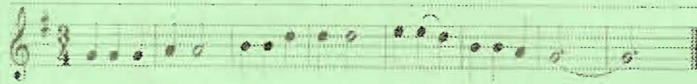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육지수, 메라 샌들맨, 소효균 요셉 & 소수연 안나
	(생) 이하운 아나스타시아 & 이윤형 엘리야, 강동욱 세례자요한 사제, 오창근 베드로 사제
주 일 낮미사	(연) 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김혜옥, 조지 가보라, 박부성, 최인순
	(생) 조윤재 요셉, 박광식 바오로, 이희운 도미니카, 이종원 베드로, 김현빈 바오로, 권오상 바오로, 박지연 요 안나, 최승원 아나스타시아, 석순영 아녜스, 이따란 마리아 & 양기자 올리아나, 유철희 바오로, 홍석인 체칠리아, 강동욱 세례자 요한 사제,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12,1-11

화답송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여,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들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 4,6-8.17-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복 음 마태오(Matthew) 16,13-19

영성체송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77	107	107
봉헌	352	268	243
성체	409	300	290
파견	417	312	119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부록 2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1335-1348>

(이 찬미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기에 기도문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21(21번에서 계속) 찬양으로 공경을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마음의 태양빛이시여.

기뻐하십시오. 꺼지지 않는 빛살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영혼을 비추는 등불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원수들을 떨게 하는 천둥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사방으로 비추는

광채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사방으로 흐르는 샘을 솟게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예언된 세례를 먼저 드러내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죄의 더러움을 씻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양심의 불결함을 씻는 물그릇이시여.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방향(芳香)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신비스러운 향연의 생명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22 해묵은 빛,

모든 사람의 빛을 갚으신 분께서 용서를 베푸십니다.

은총에 등을 돌린 사람들 속에서

기꺼이 귀양살이를 하셨습니다.

빛 문서를 찢으셨습니다.

모두로부터 찬미의 노래를 듣습니다. 알렐루야!

23 당신의 탄생을 호산나 노래합니다.

모두가 살아 있는 성전이신 어머니께 찬미를 드립니다.

당신 팔을 뻗어 모두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어머니 태중에 내려오실 때

어머니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모두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느님의 장막이시며

그분 말씀의 장막이시여.

기뻐하십시오. 그 어느 성인들보다도 뛰어난 거룩하신 분.

기뻐하십시오. 성령의 황금 캐시여.

기뻐하십시오. 닳아 버릴 수 없는 생명의 보물이시여.

기뻐하십시오. 거룩한 왕의 고귀한 관이시여.

기뻐하십시오. 경건한 사제들의 명예이며 존경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교회의 탑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임금의 난공불락의 성채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승리의 공적비가 세워집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 덕분에 적들이 파멸됩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내 육신을 위한 명약이십니다. <◆계속>

묘비명

우리 가톨릭교회의 양대 기둥인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두 사도의 거룩한 삶과 죽음은 우리 믿는 이들의 부궁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두 사도의 대축일 미사 때 부르는 다음 성가는 들을 때마다 늘 힘이 납니다.



“교회의 반석 성 베드로와 선교의

주보 성 바오로는 신앙을 위해 순교하시고 승리의 관을 받으셨도다.”(가톨릭성가 291장 1절)

두 사도의 평생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의 표현이 순교입니다. 주님을 위한 두 사도의 파란만장한 삶은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위트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단점이나 결점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을 향한 열렬한 사랑을 보십니다.

저는 어느 묘지를 방문하든 먼저 살펴보는 게 묘비명입니다. 피정 지도를 할 때에는 묘비명을 써 보도록 권고 합니다. 좌우명과 직결되는 묘비명이지요. 이를 통해 한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주님과 함께 충실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 베드로의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분명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공동번역 요한 21.16)였을 것입니다. 성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을 좌우명 삼아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나깨나 주님 사랑에

전념했을 것이며, 묘비명도 아마 이 말씀을 택했을 것입니다.

성 바오로의 좌우명이자 묘비명은 무엇일까요? 제가 선택해 드린다면 주저함 없이 오늘 제2독서 중,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2티모 4,7)라는 사도의 유언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이어 제 좌우명이자 묘비명을 소개합니다. 올해 ‘사제서품 25주년’을 맞이하여 확정된 자작 고백시 중 일부입니다. 좀 길다 싶지만, 제 묘비명에는 다음 고백을 써 달라 부탁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끊임없이 하느님 바다 향해 흐르는 강이 되어 살았습니다.

때로는 좁은 폭으로 또 넓은 폭으로
때로는 완만하게 또 격류로 흐르기도 하면서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흐르는

‘하느님 사랑의 강’이 되어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일일일생(一日一生), 하루를 평생처럼,
처음처럼 살았습니다.

저에겐 하루하루가 영원이었습니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살았고

내일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하느님은 영원토록 영광과 찬미받으소서. 아멘.”

◆이수철 신부 /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P.V. 2,4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감사합니다. ✎

- ◆ 7월1일부터 2014년~2015년(6월30일까지) LA 대교구의 사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백삼위 본당에서도 평신 사도협의회가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그 동안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합류하신 사목위원들과 함께 본당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합니다. 본당신부님께서 임명하신 사목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회장 : 최기남 야고보
- 부회장 : 박인식 토마스, 오혜숙 루시아
- 총무 : 현석주 아오스딩 ● 부총무 : 김상규 니콜라오
- 복음화분과장 : 이영석 크리스토퍼 ● 사회복지분과장 : 이정훈 안셀모 ● 소공동체부장 : 김명재 아가다
- 시설관리분과장 : 김찬구 요한 ● 전례분과장 : 김성현 유스티노
- 조경분과장 : 김양금 안나 ● 종교교육분과장 : 정동호 하삼바오로
- 청소년분과장 : 김준 방지거 ● 체육분과장 : 박개순 도미니코
- 홍보분과장 : 박현희 프란치스코 ● 재무분과장 : 미정

◆ 유아세례 축하합니다.

- 6월28일(토) 오후 6시에 2명의 남매가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하윤 아나스타시아 ♥이윤형 엘리야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특강 안내

백삼위 본당 전임신부님이셨고 현재 부산교구 물운대 성당 주임신부님이신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께서 본당을 방문, 특강을 해주십니다. 많이 참석하여 은혜로운 시간되십시오.

- 제1강 : 7월9일(수) 저녁미사후
주제 : 이시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 제2강 : 7월13일(주일) 오후1시
주제 : 성숙한 신앙인의 사명

◆ 본당 홈페이지(<http://www.103skcc.org/>)에 서식/양식 게시판 올림

- 신자분들의 많은 방문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직접 사무실

♥ 베드로 신부님, 요한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

6월24일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로 손님신부님으로 저의 본당에 와계신 강동욱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또 6월29일(오늘주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로 오창근 베드로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축하 모임은 주일 낮 미사후 친교장에서 있습니다. 전신자에게 맛있고 시원한 미역국을 대접합니다.

에 오지 않으셔도 필요한 서식 및 양식을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광장" 에서 서식/양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문의 : 103skcc@gmail.com

◆ 자모회 주관 '자녀와 함께하는 공예교실'

- 기간 : 7월5일~8월23일(8주간) 매토요일 오후 2시~4시
- 장소 : 성당 1층 회의실 또는 교실
- 강사 : 유선영 클라라(준비물관계로 미리 신청바랍니다.)
- 문의 : 자모회장 한길선레 스폴라스티카☎(310)782-1025

◆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 참가단 모집...서두르세요.

'교황님과 함께하는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과 한국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비치된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 2014년 제27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요한 1, 38-39)
- 일시 : 8월2일(토), 8월3일(주일),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
- 강사 : 반병익 라파엘 신부(청주교구 감곡매곡성모순례자성당),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텍사스 엘파소 성김대건한인성당),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인천교구 마래사목연구소소장)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213)369-0173

◆ 백삼위 한인성당 본당 신임사무장에 박현주 카타리나 자매가 2014년 7월1일부터 근무합니다.

교회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우들의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29일(주일) : P.V. 1반봉사(전신자 무료점심 미역국)
- 7월6일(주일) : 독립기념일 연휴로 친교자리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국세찬	권태만	김교복	김원호	김재영
	김 준	김충섭	김현숙	박봉성	박선희	박완철
	신순철	안종연	양영관	엄세중	오상준	오신재
	오영섭	육근주	이근태	이숙화	이우성	정병훈
	정순석	주영석	최미열	최이원	최진수	한창주
	한혁수	홍광선	홍석인	황지영		
	합계 : \$4,965					
주일미사 헌금 : \$2,657						
성전헌금	강태홍	국세찬	권태만	김교복	김원호	김 준
	김충섭	김현숙	박봉성	박선희	박완철	신순철
	안종연	양영관	엄세중	오영섭	이근태	이숙화
	이우성	정순석	최미열	최이원	최진수	한창주
	한혁수	홍광선	홍석인	황지영		
	합계 : \$3,024					
감사헌금 : \$50(박이레네)						

공지사항

◆ 본당 배론 청년회로 오세요!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즐겁고 보람찬 성당활동을 같이할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사전례와 본당 행사에 참여하여 의미있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 대상 :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 대학생부터 누구나 다...
- 문의 : 이범주 다니엘 (310)988-8785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등학교 교사 * 자격 : 영어 가능한 남녀 교우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주일학교 서머캠프 중입니다

6월27일(금)부터 오늘 주일까지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 서머캠프에 참가중인 주일학교학생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5일(금)~27일(주일)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그룹리더 ☎(310)709-3343

◆ 2014-2015학년도 백삼위한국학교 등록 접수중

- 문의 : 최 바르톨로메오 한국학교교장 ☎(213)700-9399

◆ 대학수능 SAT 한국어 준비반 백삼위 본당에서 교육

- 기간 : 6월21일(토)~8월2일(토), 한국어진흥재단 주관
- 공부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낮 12시30분
- 수강료 : 무료(등록비 \$20와 교재비를 받습니다.)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제2회 학생 성화미술대회출품 내일(30일) 마감

- 주제 : 주님은 나의 목자
- 대상 : 유치부, 초,중,고등부 학생
- 마감 : 6월30일까지 * 보낼곳 : 가톨릭신문사
- 문의 : 가톨릭미술가회 ☎(818)667-2877

◆ 특강 : 그리스도교, 윤리와 성.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 일시 : 7월27일(주일) 오후 1시~4시
- 강사 : 이인국 바오로(서강대학교수, 생명윤리학박사)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
- 주관 : KCLC(미서부지역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
- 문의 : 양 요안나 ☎(909)518-4376

◆ KCLC 2박3일 영신수련 침묵 피정

- 일시 : 8월1일(금)~3일(주일)
- 지도 : 김영훈 신부(예수회)
- 장소 : Prince of Peace Abby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양요안나 (909)5184376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정희 올리아 213-675-0498 6/14(토) 오후 6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장수영 패트릭 701-6343 6/14(토) 오후 7시 성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3(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임순 데레사 780-3258 6/14(토) 오후 6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6/15(주일) 플라이스리타캐년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방미숙 마리아 617-1132 6/13(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6/8(주일) 오후 2시 성당친교장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주이자 데레사 634-6923 6/13(금) 오전 10시30분 성당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이상철 크리스토퍼 818-6902 6/15(주일) 오후 5시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최미열 클라라 404-1607 6/9(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유명련 마리아 365-0660 6/14(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
P. V.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미니 213-700-6983	이갑열 데레사 533-7718 6/13(금) 오후 6시30분
	2	금유미 크리스시아 482-9108	금유미 크리스시아 482-9108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치영 프란치스코 818-1799 6/13(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강숙경 도미니카 617-3568 6/3(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 반장 모임	오후 1시 강당
-------------	----------

교황님은 누구?

최근 몇 년 사이 교황님들이 이야기로 세상이 뜨겁습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종신직인 교황직에서 과감하게 은퇴하셨고, 현 교황님이신 프란치스코는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어떤 분입니까?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의 수위권을 계승하는 로마의 주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케파'라 부르시며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인 로마의 주교가 모든 주교들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시무스 폰티팩스'(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가장 큰 다리)라고 하며, 교황님 스스로는 '세르부스 세르보룸', 즉 종들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파파'를 교황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리스도교가 한자 문화권에 전래될 때 의역하는 과정에서 그리된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황님이 세상의 황제처럼 군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교황님은 군림하는 황제라기보다 교회에 봉사하는 종이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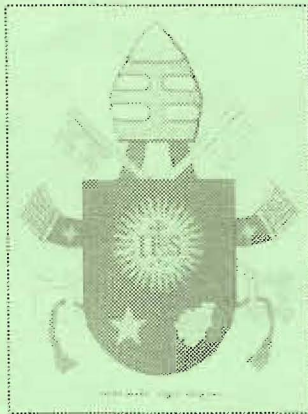
교황님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이며,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고, 세계주교단의 단장이자 교회의 최고 사목자인 것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며, 하느님 백성의 영적인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부터 266번째 교황님입니다. 이들 중 80명은 성인이고 10명은 복자입니다. 출신으로 보자면, 이탈리아 210명, 프랑스 16명, 그리스 12명, 독일 8명, 시리아 6명, 팔레스타인과 스페인, 아프리카가 각 3명, 잉글랜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폴란드, 아르헨티나 출신이 각 1명입니다.

가장 오래 재임한 분은 255대 비오 9세로 31년 8개월, 두 번째로 오래 재임한 분은 264대 요한 바오로 2세로 26년 6개월이라고 합니다.

평신도 출신으로 하루만에 모든 신품성사를 받고 교황이 되신 분도 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황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 종들의 종으로서 가톨릭



<프란치스코 교황의 문장>

교회회의 최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지상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 16, 18)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이며 동시에 가시적인 교회와 제도를 만들어주셨는데, 그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베드로 사도와 그 후계자들에게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순종하는 신앙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지상의 대리자 교황님께 순명과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교황 주일을 맞아 교황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잘 지고 가실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더 잘 섬기시도록 기도해 드립니다.

◆박혁 스테파노신부 / 부산교구 거제동성당 주임

대학생 딸이 음식을 많이 먹은 뒤, 화장실에 가서 토하곤 합니다. 밤에 혼자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는 토하고, 다음날 또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포만감이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위트가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마음이 우울할 때, 먹는 것으로 풀곤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음식을 찾다보면 배고픔과는 무관하게 먹게 되고, 이것이 폭식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는 육체의 허기를 채우듯 자신이 느끼는 심리적 허기를 먹는 것을 통해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구토하게 되는 이유는 음식을 먹고 난 뒤 느끼게 되는 후회와 죄책감 때문입니다. 여대생의 경우 특히,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 먹은 뒤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마음을 풀기 위해 먹었는데 먹은 것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아 토하게 되는, 이것이 폭식과 구토의 악순환입니다.

폭식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 혼자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아야만 그 허기짐을 달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따님이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어머니를 통해 느낄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